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

임상호

순천향대학교 스마트팩토리공학과

Status of Satisfaction with Settlement Condi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Chungnam-do Residents

Sang-Ho Lim

Department of Smart Factory Engineering, Soon Chun H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충청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자료 2020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사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데이터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일부 519개 데이터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충청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인 정주여건 거주환경이 삶의 질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점 만점에 5.92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8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분석되어 충청도민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약간만족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와 43.5% 비율로 분석되었고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는 약간만족 206명 39.7%,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약간만족이 231명으로 44.5%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약간만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주여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충청도민의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주제어 정주여건, 거주환경, 만족도, 충청남도, 지역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and the analysis data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hungcheongnam-do social survey conducted in 2020 by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esidents of Chungnam Province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of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is a personal characteristic, was 5.92 out of 10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one's life, and 6.28 out of 10 for the overall value of the work one is doing.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region (city and gun) was analyzed as 5.81 out of 10, indicating that the satisfaction of Chungnam residents was more than average.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housing environment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frequency and ratio of 43.5%, with 226 people being slightly satisfied. Satisfaction with facility use was also slightly higher in 231 people, showing 44.5% response rate, and slightly higher in women than in me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such a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grasping the social interest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Chungnam.

Key Words Settlement conditions,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Chungcheongnam-do, region

Received 04 Oct 2021, Revised 14 Oct 2021

Accepted 21 Oct 2021

Corresponding Author: Sang-ho Lim

(Soon Chun Hyang University)

Email: 35limsangho@gmail.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인구의 증감은 도시의 경쟁력과 역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주여건이란 정주생활여건 또는 정주환경 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인간의 정주,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자연·인공요소의 총화로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갖는 특수성과 자체적 매력이 근간이 되는 살기 좋은 도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살고 싶게 하는 환경,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시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주환경에는 주거서비스, 교통, 통신, 기초생활환경, 정보화,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관광, 교통접근성 및 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채성주 외 5, 2012). 한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적 환경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객관적으로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러한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

거주 도시민들은 스스로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의 정도로 측정하고 있고, 삶의 질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환경 및 국가의 문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신상준, 2012). 이에 주거 환경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수용하고 생활의 가치와 기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동찬, 2019).

본 연구는 거주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으로 유입되는 잠재적 수요 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민의 관점에서 생활환경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충청남도 도민의 개인적 특성인 정주여건 거주환경이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정주여건이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뜻하고 ‘여건’은 주어진 조건을 뜻한다. 즉, 혼자 혹은 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사는 환경의 정도를 정주여건이라고 하며(양성민, 2019), 거주환경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와 같은 물리적 개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정의되어진다(백성욱, 2021).

정주환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주환경을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정도이자,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지된 만족 또는 불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도시가 갖는 특수성과 도시가 갖는 자체적 매력이 근간이 된 살기 좋은 도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에 살고 싶게 하는 환경,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시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개념 등으로 정의하였다. 정주환경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복지사회,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지, 생활수준, 생활의 기준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주환경에 대해 도시생활의 질, 다시 말해 삶의 질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채성주 외 5, 2012). 또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2007)에서는 나이, 소득, 능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집 또는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김행석, 2020).

삶의 질(QOL)은 개인의 복지 수준 및 생활의 건강도 등의 생활환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지역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척도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정교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과 주도적인 역할이 과거의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오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성 대응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방의 정책 및 행정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이승철, 2014).

3. 선행연구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주현, 안용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거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물리적 시설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근린생활시설(+), 생활문화 시설(+), 근린체육시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통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주차환경(+), 교통환경(+), 교통안전(+), 요인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커뮤니티 특성은 이웃과의 유대감(+), 지역에 대한 소속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상준(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 편의시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본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토대로 분석결과, 생활편의시설은 사회자본인 신뢰와 네트워크 두 변수 모두 삶의 만족도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립변수가 생활 편의시설과 네트워크로, 또한 생활 편의시설과 신뢰로 규정한 두 회귀 모형식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백성욱(2021)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공간, 인근지역의 질, 그리고 사회적, 물리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거주자의 편리하고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근린주구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개인의 이사욕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임선미(2016)는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노후준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모두가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더욱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가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승철(2014)은 도시지역의 일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이 충족 될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요인과 일반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삶의 질 여건의 세부적인 측정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도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 중 하나의 여건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여건별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를 살펴서 적절히 차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영명(2018)은 지역별로 주거지 주위의 환경과 상관 없이 주거하는 주택자체의 상태가 좋을수록, 판매시설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문화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게 추정되었다고 하였다.

뉴스1(2019)에 의하면 충청도민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5점으로 20대의 만족도가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충청도민 주관적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민 225명의 평균 만족도는 6.75점으로 분석되었다.

구정화(2021)는 인구가 유입되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장 우선 요구되는 정책 순위는 경제적 환경으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등 특히 소비 여건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돈을 쓸 수 있는 상업시설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거주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고찰한 결과 거주환경 만족도와 삶의 질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충청도민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IBM SPSS Statistics 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5.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거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표 1>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 성별은 남자는 269명 51.8%, 여자는 250명 48.2%이며, 연령은 10대 1.3%, 20대 4.8%, 30대 16%, 40대 23.5%, 50대 26.8%, 60대 이상 27.6%로 나타났고 학력은 초졸 이하 10%, 중졸이하 9.6%, 고졸 이하 46.6%, 대학이상 33.7%이고 결혼상태는 미혼(비혼)

13.3%, 배우자 있음 70.1%, 사별 6.7%, 이혼 9.8%, 충남 시군 거주기간은 5년 미만 5.8%, 5~10년 미만 7.9%, 10~15년 미만 13.7%, 15~20년 미만 9.2%, 20년 이상 63.4%,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9.6%, 100~200만원 미만 15%, 200~300만원 미만 22%, 300~400만원 미만 20%, 400~500만원 미만 12.9%, 500만원 이상 20.4%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N=519)

변수	측정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269	51.8
	여자	250	48.2
연령	10대	7	1.3
	20대	25	4.8
	30대	83	16
	40대	122	23.5
	50대	139	26.8
	60대 이상	143	27.6
학력	초졸 이하	52	10
	중졸 이하	50	9.6
	고졸 이하	242	46.6
	대학 이상	175	33.7
결혼 상태	미혼(비혼)	69	13.3
	배우자 있음	364	70.1
	사별	35	6.7
거주기간 (충남 시군)	이혼	51	9.8
	5년 미만	30	5.8
	5~10년 미만	41	7.9
	10~15년 미만	71	13.7
	15~20년 미만	48	9.2
가구소득	20년 이상	329	63.4
	100만원 미만	50	9.6
	100~200만원 미만	78	15
	200~300만원 미만	114	22
	300~400만원 미만	104	20
	400~500만원 미만	67	12.9
	500만원 이상	106	20.4

5.2 가구형태 현황 분석

2020년 가구형태 현황에 관한 분석은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29.7%, 아파트 65.5%, 연립주택 2.7%, 다세대주택 1.7%, 기타 0.4%이며 주택점유형태는 자기집 67.8%, 전세 10.6%, 월세 21.6%이고 가구원수는 1인가구 20.4%, 2인가구 32.9%, 3인가구 19.5%, 4인가구 19.1%, 5인 이상 가구 8.1%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본인 62.4%, 배우자 31.2%, 미혼자녀

4.8%,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0.2%,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2%, 부모(배우자 쪽 포함) 1.0%, 미혼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0.2%로 나타났다.

<표 2> 가구형태 현황 분석

(단위: 명/N=519)

변수	측정 항목	빈도	%
주택형태	단독주택	154	29.7
	아파트	340	65.5
	연립주택	14	2.7
	다세대주택	9	1.7
	기타	2	0.4
점유형태	자기집	352	67.8
	전세	55	10.6
	월세	112	21.6
가구원수	1인 가구	106	20.4
	2인 가구	171	32.9
	3인 가구	101	19.5
	4인 가구	99	19.1
	5인 이상 가구	42	8.1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본인	324	62.4
	배우자	162	31.2
	미혼자녀	25	4.8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1	0.2
	손자녀 및 그 배우자	1	0.2
	부모(배우자 쪽 포함)	5	1.0
	미혼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1	0.2

5.3 삶에 대한 만족도 분석

충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나타났다.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정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8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삶에 대한 만족도 분석

(단위: 명/N=519)

변수	측정 항목	빈도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2.8
	2점	7	1.3
	3점	24	4.6
	4점	32	6.2
	5점(보통)	35	6.7
	6점	119	22.9
	7점	47	9.1
	8점	118	22.7
	9점	92	17.7
	10점(매우 만족한다)	27	5.2
현재 하는 일 가치정도 만족도	1점(전혀 가치 없다)	8	1.6
	2점	6	1.2
	3점	30	5.8
	4점	27	5.2
	5점(보통)	121	23.3
	6점	67	12.9
	7점	117	22.5
	8점	87	16.8
	9점	40	7.7
	10점(매우 가치 있다)	16	3.1
지역(시군) 생활 만족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1.6
	2점	20	3.9
	3점	33	6.4
	4점	39	7.5
	5점(보통)	125	24.1
	6점	89	17.1
	7점	115	22.2
	8점	66	12.7
	9점	19	3.7
	10점(매우 만족한다)	5	1.0

5.4 거주환경 만족도 분석

거주환경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현재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2.7%, 약간불만족 14.6%, 보통 23.9%, 약간만족 43.5%, 매우만족 15.2%로 나타났고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2.1%, 약간불만족 14.8%, 보통 35.8%, 약간만족 39.7%, 매우만족 7.5%이며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9%, 약간불만족 14.1%, 보통 29.9%, 약간만족 44.5%, 매우만족 9.6%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거주 환경 만족도 분석

(단위: 명/N=519)

변수	측정 항목	빈도	%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	14	2.7
	약간 불만	76	14.6
	보통	124	23.9
	약간 만족	226	43.5
	매우 만족	79	15.2
시청,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	11	2.1
	약간 불만	77	14.8
	보통	186	35.8
	약간 만족	206	39.7
	매우 만족	39	7.5
시장,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	10	1.9
	약간 불만	73	14.1
	보통	155	29.9
	약간 만족	231	44.5
	매우 만족	50	9.6

5.5 만족도와 성별 교차 분석

만족도와 성별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이 남자 111명, 여자 115로 총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주거 주택환경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은 남자 49.1%, 여자 50.9%의 비율로 나타났다. 약간만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가 41.3%, 여자가 46%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전체(%)에서 약간 만족의 남자 비율은 21.4%, 여자 비율은 22.2%로 나타나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용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이 남자 99명, 여자 107명으로 총 20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주거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은 남자 48.1%, 여자 51.9%의 비율로 나타났다. 약간만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가 36.8%, 여자가 42.8%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전체(%)에서 약간 만족의 남자 비율은 19.1%, 여자 비율은 20.6%로 나타나 시청,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용 만족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남자 113명, 여자 118명으로 총 231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은 남자 48.9%, 여자 51.1%의 비율로 나타났다. 약간만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가 42%, 여자가 47.2%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전체(%)에서 약간 만족의 남자 비율은 21.8%, 여자 비율은 22.7%로 나타나 시장,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만족도와 성별 교차분석 (단위: 명/N=519)

		성별			
		남자	여자	전체	
거주 주택 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	빈도	8	6	14
		기대 빈도	7.3	6.7	14.0
		주택환경 만족도 중%	57.1%	42.9%	100%
		성별 중%	3.0%	2.4%	2.7%
		전체%	1.5%	1.2%	2.7%
		빈도	40	36	76
	약간 불만	기대 빈도	39.4	36.6	76.0
		주택환경 만족도 중%	52.6%	47.4%	100%
		성별 중%	14.9%	14.4%	14.6%
		전체%	7.7%	6.9%	14.6%
		빈도	66	58	124
		보통	기대 빈도	64.3	59.7
	주택환경 만족도 중%		53.2%	46.8%	100%
	성별 중%		24.5%	23.2%	23.9%
	전체%		12.7%	11.2%	23.9%
	빈도		111	115	226
	약간 만족		기대 빈도	117.1	108.9
		주택환경 만족도 중%	49.1%	50.9%	100%
		성별 중%	41.3%	46%	43.5%
		전체%	21.4%	22.2%	43.5%
		빈도	44	35	79
		매우 만족	기대 빈도	40.9	38.1
	주택환경 만족도 중%		55.7%	44.3%	100%
	성별 중%		16.4%	14.0%	15.2%
전체%	8.5%		6.7%	15.2%	

전체	빈도	269	250	519	
	기대 빈도	269	250	519	
	주택환경 만족도 중%	51.8%	48.2%	100%	
	성별 중%	100%	100%	100%	
	전체%	51.8%	48.2%	100%	
매우 불만	빈도	8	3	11	
	기대 빈도	5.7	5.3	11.0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중%	72.7%	27.3%	100%	
	성별 중%	3.0%	1.2%	2.1%	
	전체%	1.5%	0.6%	2.1%	
	약간 불만	빈도	33	44	77
		기대 빈도	39.9	37.1	77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중%	42.9%	57.1%	100%
		성별 중%	12.3%	17.6%	14.8%
		전체%	6.4%	8.5%	14.8%
		보통	빈도	109	77
	기대 빈도		96.4	89.6	186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중%	58.6%		41.4%	100%	
성별 중%	40.5%		30.8%	35.8%	
전체%	21.0%		14.8%	35.8%	
약간 만족	빈도		99	107	206
	기대 빈도	106.8	99.2	206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중%	48.1%	51.9%	100%	
	성별 중%	36.8%	42.8%	39.7%	
	전체%	19.1%	20.6%	39.7%	
	매우 만족	빈도	20	19	39
기대 빈도		20.2	18.8	39.0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중%		51.3%	48.7%	100%	
성별 중%		7.4%	7.6%	7.5%	
전체%		3.9%	3.7%	7.5%	

전체	빈도	269	250	519	
	기대 빈도	269	250	519	
	공공시설 만족도 중 %	51.8%	48.2%	100%	
	성별 중 %	100%	100%	100%	
	전체%	51.8%	48.2%	100%	
시장,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	빈도	8	2	10
		기대 빈도	5.2	4.8	10.0
		쇼핑시설 이용만족도 중 %	80.0%	20.0%	100%
		성별 중 %	3.0%	0.8%	1.9%
		전체%	1.5%	0.4%	1.9%
		약간 불만	빈도	32	41
	기대 빈도		37.8	35.2	73.0
	쇼핑시설 이용만족도 중 %		43.8%	56.2%	100%
	성별 중 %		11.9%	16.4%	14.1%
	전체%		6.2%	7.9%	14.1%
	보통	빈도	87	68	155
		기대 빈도	80.3	74.7	155
		쇼핑시설 이용만족도 중 %	56.1%	43.9%	100%
		성별 중 %	32.3%	27.2%	29.9%
		전체%	16.8%	13.1%	29.9%
약간 만족	빈도	113	118	231	
	기대 빈도	119.7	111.3	231	
	쇼핑시설 이용만족도 중 %	48.9%	51.1%	100%	
	성별 중 %	42.0%	47.2%	44.5%	
	전체%	21.8%	22.7%	44.5%	
매우 만족	빈도	29	21	50	
	기대 빈도	25.9	24.1	50	
	쇼핑시설 이용만족도 중 %	58.0%	42%	100%	
	성별 중 %	10.8%	8.4%	9.6%	
	전체%	5.6%	4.0%	9.6%	

전체	빈도	269	250	519
	기대 빈도	269	250	519
	쇼핑시설 만족도 중 %	51.8%	48.2%	100%
	성별 중 %	100%	100%	100%
	전체%	51.8%	48.2%	100%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인 정주여건 생활환경이 삶의 질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점 만점에 5.92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8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분석되어 충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약간만족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와 43.5% 비율로 분석되었고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는 약간만족 206명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약간만족이 231명으로 44.5%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차분석 결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약간만족으로 분석되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같이 이승철(2014)은 삶의 질이란 본인이 직접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히 평가될 수 없고 객관적인 생활 조건의 향상만으로는 삶의 질을 당연히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차원의 사회지표조사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삶의 질의 만족도는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지표로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지표 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 주관적 변수들을 잘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정주여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충남도민의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References

- [1] 김주현.안용진(2017), “사회적 커뮤니티 특성이 거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자료(2016)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3호, pp.73-90.
- [2] 이승철(2014), “구미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과 향상 방안 - 중단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pp. 109-133.
- [3] 채성주.김진덕.배민기.변혜선.오상진.조택희(2012), “충청북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 방안”, 충북 Issue & Trend.
- [4] 양성민(2019), “옥천지역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정주여건이란”, 충북연구원, 충북 Issue & Trend, pp.22-25.
- [5] 신상준(2012),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행석(2020),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욕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백성욱(2021),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와 Aging in Place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박동찬(2019), “주거환경 만족도평가의 현황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황영명(2018),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전국·서울시·부산시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임선미(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구정화(2021),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이주계획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뉴스1: <https://www.news1.kr/>

[13]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14]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

임 상 호(Sang-Ho, Lim)



- 2020년 9월~현재 : 순천향대학교 창 의라이프대학 스마트팩토리공학과 교수
- 2015년 03월~ 2020년 02월 : 공주대학원 겸임교수
- 2009년 09월~ 2014년 08월 : KICU 대학원 교수 (교학처장)
- 2011년 10월 : KICU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통계, 경영학, 기계
- E-Mail : 35limsangho@gmail.com